

[13] 정 두 경

충남 아산군 온양이 본관이신 그는 일찍이 문장에 무척 뛰어났다 한다.

그의 집은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인 곳의 아늑한 곳에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꿈에, 높은 하늘에 달을정도로 높은 산으로부터 한줄기 빛이 뻗치더니 자신의 품으로 빛이 스며들어 깜짝놀라 꿈을 깨어 남편에게 이를 아뢰자 좋은 징조라 하며 잠시 기다려 보자 하였다. 그 후로 잉태를 하여 아이를 낳으니 바로 '정두경'이다. 외할아버지께서 처음 그를 보시자 허허 웃으며 앞으로 큰 인물이 될까라 하셨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문장에 뛰어났다 하는데 그도 역시 자라면서 그 영특함이 어찌나 뛰어났는지 천자를 단숨에 깨우치고는 방안에만 틀어박혀 책만을 가까이 하니 밤에도 그의 방엔 불이 꺼질줄을 몰랐다. 그의 어머니께서 너무 책만 가까이하여 건강이 나쁠까 염려, 밖에 나가서 놀다오라 이르면 공손히 "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하고는 고작 아름다운 산천을 휘 둘러보며 한시조 읊고는 어느새인지 방안에 들어와 또 책을 대하는 것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방에서 두런두런 책읽는 소리가 들려 방안을 살피니, 밖에서 놀고 있을줄 알았던 그가 또 책을 읽음을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나가서 놀으라는 말을 일체 삼갔다.

그의 아버지도 그가 너무 책에만 집착하여 세상일에 소홀이 할까 두려워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를 권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그리고 형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드매 외할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그도 같이 가르침을 받았는데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천자문을 단숨에 깨우쳐 외할아버지를 놀라게 했다.

하루는 외할아버지께서 뚝을 거닐다가 어디선가 논어를 읽는 소리가 들리매 그의 형이 읽는가 하고 너무 낭랑하게 뜻을 또렷이 풀이하기에 감복하여 칭찬해 주려 방문을 열고보니 그의 형이 아닌 어린 손자의 소리였기에 그를 번쩍 안아 올리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세월이 지나 그도 장성하여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가게 되었다. 하루는 한양에 이르는중, 한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마침 한양으로 과거보러 가는 선비가 몇 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선비가 탄식하여 이르길, 과거시험에 있어서도 글재주만 갖고는 어렵다면 혹간의 선비는 시험관에게 뇌물을 주고 급제한다는 사례가 있다 일러 주었다. 그 선비는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데 부정한 선비로 인해 과거길이 막힌다는 것이다.

밤이되어 내일 일찍 떠나기 위해 잠을 청했으나 그선비의 말이 떠올라 잠이 안 왔다. "이 부패된 세상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하고는 과거를 안 볼까 생각하였다가, 이왕 보기로 하였으니 한양에 일단 가지로 작정, 이튿날 일찍 그 선비들과 같이 한양으로 향했다.

그 선비와 문장도 겨루어 보며 길을 걸으니 그 선비도 문장에 꽤 능함을 보고 아무리 세상에 부정이 있다하여도 이번만은 꼭 급제하리라 믿었다.

드디어 많은 선비가 모인 가운데 과거가 열렸다. 수월하게 과거를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니 그는 뜻밖에도 장원으로 급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선비의 이름은 찾을수가 없었다. 이에 한탄하여 그의 아품을 어찌두고 제몫만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나하여 후에 홍문관제학, 예조참판등 여러높은 벼슬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그는 정계에는 큰 빛을 발하진 못하였으나 그의 뛰어난 시문은 호방한 성격과 함께 길이 역사에 남으리라 본다.

또한 정두경의 어린시절을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데에 큰 본보기가 된다.

그 시대에 비하면 책도 많고, 환경도 좋고 여러가지로 공부하기에 좋은 조건이라 본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은 어떠한가? 생각해 본다. 자신의 한 몸도 생각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차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단 말인가?